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1. 서론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만 연간 150만-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부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며,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도착어 중심으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은 아직까지는 당위성 그 자체에 그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상당수의 표지판 및 책자에서 아직도 ‘명백한 오역’이 존재하고 있다. 아래의 한글 안내문과 그 번역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자.

(1) 명백한 오역의 예시

a. **대, 중** 전시실

b. **Public** Exhibition

(출처: 문화회관 본관 입구 안내 표지판)

상기는 부산의 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회관 본관 앞의 안내 표지판으로 (1a)는 한글 안내문이며 (1b)는 영어 번역이다. 상기 (1b)는 ‘명백한 오역’이다.

번역가는 (1a)의 대(大), 중(中)을 대중(大衆)으로 이해한 후 이를 영어의 ‘Public’으로 (1b)에서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은 오역은 그나마 ‘명백한 오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지 못한 오역은 문법적으로 잘못되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으며 그 수도 참으로 많다. 이러한 오역 아닌 ‘오역’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2)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지 못한 오역’의 예시

a. 부산은 천년 역사의 **범어사**와 **동래학춤**, **수영야류**²⁾ 등과 같은 오랜 역사를 이어온 유적과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입니다.

b. Busan is rich in relics and cultural heritage, such as the **Beomeosa**, the **Dongnae crane dance**, and the **Suyeong yaryu** which has a long history.

(출처: BEXCO 1층 입구 우측의 부산 관광지 설명 포스터)

상기 (2b)의 경우 ‘명백한 오역’은 아니지만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도착어 텍스트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출발어 (2a)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출발어인 (2a)의 경우 ‘범어

1) 문화소에 대한 개념은 학문 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김효중 (37)의 정의를 따라 “문화와 관련되는 요인 및 특성으로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 언어적 요인 및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자세한 논의는 본론에서 진행한다.

2) 수영야류(水營野遊)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극이다.

사, ‘동래학춤’, ‘수영야류’ 등의 문화소가 출발어 문화권에 존재하고 출발어 독자 사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다. 반면 도착어인 (2b)의 경우 출발어 독자에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거나 동원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번역가는 출발어의 문화소를 파악하고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이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소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³⁾ 이는 번역가가 서로 이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맺어주는 지식중개인이며 도착어 독자가 생소한 출발어권의 문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소임이기 때문이다(Neubert & Shreve 54).

물론 문화소의 부등성이 있을 경우 번역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수의 기존 연구가 문화소의 부등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 메커니즘으로서의 번역전략을 사용한다면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며, 본고의 목적 또한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는데 유용한 번역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문화소의 중요성과 이의 부등성으로 인한 문제 및 보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보상 장치로서의 다양한 번역전략을 실제 번역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1. 연구 방법 및 자료

본고에서는 우선 수용자 반응 중심의 역동적 등가⁴⁾ 구현을 번역의 주요한

3) 예를 들어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을 사용한 ‘보상’을 시도한다면 상기 세 가지 문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 Beomeosa (one of the 10 Korean Zen Buddhism temples)
- Dongnae Hakchum (a dance in the costume of a crane or a dance visualizing gestures of cranes)
- Suyeong Yaryu (a kind of masquerade play or opera)

단, 포스터의 특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상은 힘들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번역 손실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4) 수식을 동원해 간략히 설명하면, M1을 출발어 의미, M2를 도착어 의미, E를 문장들

목적이라는 가정 하에,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역동적 증가 구현에 있어 핵심 요소로 인식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토록 한다.

이에 본고는 문화소의 중요성과 부등성으로 인한 문제 및 보상의 필요성을 제2장에서 살펴보면서 문화소의 부등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독자의 이해 과정 및 번역가의 번역 과정에 있어서의 문화소의 역할을 검증하기로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보상 메커니즘으로서의 다양한 번역전략을 한영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서 각각의 번역전략이 가지는 기능 및 효과, 장점 및 단점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실제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번역전략에 국한해 살펴보기로 하며 기존의 연구 중 번역전략을 다룬 연구 또한 토대로 삼는다. 번역전략을 제시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네와 다벨넷(Vinay and Darbelnet), 한센(Hansen), 베이커(Baker)의 번역전략) 중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할 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참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들의 경우, 부산의 관광지 및 문화지 답사를 통해 발견한 자료 중 가장 효과적인 번역전략을 보여준다고 판단되어 선별한 예문들이며 출처는 아래와 같다.

의 효과함수라 가정할 때, 번역가는 $E(M1)=E(M2)$ 의 방정식에서 미지의 $M2$ 를 찾아야 하며, 이 때 $E(M1)=E(M2)$ 가 반드시 $M1=M2$ 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Vinay and Darbelnet(1-55)는 총 일곱 종류의 번역전략을 영불 번역을 기초로 제시하고 있으며, Hansen은 총 다섯 종류의 번역전략을 기관의 명칭 위주로 제시하며(김효중 40에서 재인용), Baker(26-42)는 서로 다른 언어권 간의 번역에 초점을 두어 총 열두 종류의 번역전략을 제시한다. 단, 본고에서는 본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만을 선별하여 논의의 토대로 삼는다. 예를 들어 ‘단순 차용 전략’의 경우 문화소의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효한 전략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생략 전략’의 경우 출발어 및 도착어 독자가 받는 정보량과 감흥에 있어 등가를 기대하기가 힘들어 제외하였다.

표 1

본고에서 번역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예문으로 사용한 자료 출처

구분	출처
1	부산 문화회관 정문 입구 안내 표지판
2	BEXCO 1층 입구 우측의 부산 관광지 설명 포스터
3	UN 공원 Memorabilia 홀 내의 UN 참전군 설명 사진
4	근대역사박물관 2층 입구 포스터
5	해운대 해수욕장 정문 입구 안내도
6	태종대 정문 입구 안내 표지판
7	동래향교 정문 앞 안내 표지판
8	충렬사 안내 책자, 2006
9	부산박물관 본관 입구 비석 풋말
10	부산박물관 홍보 책자, 2006
11	자갈치축제 홍보 책자, 2006

다수의 기존 이론서에서 스스로 번역전략에 맞게 예문을 임의로 만든 것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필자가 답사를 통해 찾은 자료에서 실제로 발견되는 번역문을 기초로 번역전략을 분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안된 예문을 사용하는 경우 자칫 실제로 사용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특수한 용법 및 전략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영 번역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문화적 격차가 더 클수록 번역가의 보상 또한 강화되어야 하며, 묵시적인 정보까지도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Brown 22-30) 적극적인 보상의 필요성이 커 다양한 번역전략을 관찰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권 문화는 저배경 문화(low context culture)로 텍스트가 상당히 명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고배경 문화(high context culture)인 한글의 묵시적 요소도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전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고배경 문화 내의 의사소통의 경우 대부분의 정보가 물리적인 환경이나 맥락 또는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람들 내에 내재화되어 있는 반면 저배경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정보가 언어적 메시지에 명시화되어 있으며 물리적 환경이나 참여자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Porter &

Samovar 10-17)는 점을 생각한다면 번역전략은 한영 번역과 영한 번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문화소의 부등성과 보상 장치로서의 번역전략의 필요성

1980년대부터 문화와 번역과의 연관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문화소의 개념이 번역학 연구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문화소 번역을 위해서는 언어 지식 뿐만 아니라 방대한 문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소가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에서 공유되지 않는다면 번역에서의 등가 구현이 힘들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번역이 문화의 변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 문화소는 번역의 핵심적 요인이다(김효중 36-37).

사실 문화소에 대한 지식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번역에 있어서의 등가, 특히 수용자 반응 차원의 등가⁶⁾가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은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서는 항상 존재하며, 이는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톨체(Stolze)는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부재한 경우를 ‘실제적 부등성’으로, 출발어 문화권의 문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서 존재하지만 출발어 문화소의 뜻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원치 않는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적 부등성’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효중 39에서 재인용).

파이크(Pike 55-70)의 공통문화(etic)와 문화 특수적 측면(emic)의 이분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자의 광범위한 존재로 인해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전자의 폭이 더 넓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강도를 고려할 때 문화적 배경이 아주 상이한 한국어와 영어권 문화 사이에

6) Nida and Taber(23)는 출발어 텍스트를 읽은 독자와 번역된 도착어 텍스트를 읽은 독자가 보이는 반응을 고려하여 번역을 해야 하며 번역의 핵심은 그 효과 또는 반응에 있으며 두 언어의 대응점을 찾는 것은 반응의 계층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Macaulay(162)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수용자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한다.

서는 의사소통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문화소의 부등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번역전략이 있으며, 번역물이 출발어의 형태적 측면 및 인지적·정감적 측면 모두를 재현한 등가물이라는 점(Lederer 107)을 고려한다며 출발어의 문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번역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이와 같은 번역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텍스트와 인지적 구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Le-Ny 198)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 번역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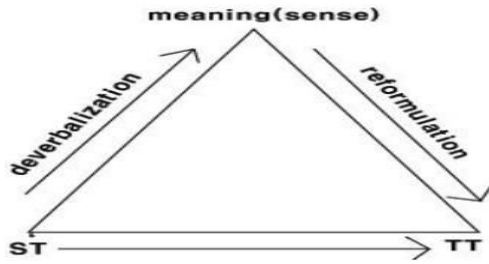
이러한 문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독자의 이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문화와 관련한 지식 및 지식 구조의 불일치이기 때문이다(Carrell 340). 또한 어떤 한 문화의 글이 다른 문화의 언어로 번역이 될 경우 도착어 독자는 자신의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의미를 해석하려 할 것이며, 기존의 문화소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경우 의미 해석 결과 또한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 문화소가 독자의 이해 과정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려 할 때 독자 자신의 언어 및 문화에 기초한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또한 독자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때만 새로 주어진 정보가 의미를 얻게 된다. 물론 도착어 독자 중에서 개인에 따라 문화소의 이해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문화권 내에서 유사한 행동 및 반응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문화소에 대한 이해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Ellis 125).

상기와 같이 문화소에 대한 이해는 독자가 텍스트의 지시적, 그리고 표현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원해야 할 요소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소에 대한 이해는 독자뿐만 아니라 번역가에게도 중요하다. 일반 독자와는 달리 ‘적극적인 독자’이자 ‘중개인’이기도 한 번역가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소는 번역의 중요한 단계인 탈언어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구성 단계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기 때문이다. 탈언어화와 재구성을 요체로 하는 해석이론⁷⁾의 삼각형 모델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토록 하자.

7) 해석이론은 파리 통역번역대학원(ESIT)의 Seleskovitch가 회의통역 분석을 위해 발전시킨 인지 이론으로 번역에도 확장·적용되고 있다.

그림 1 해석이론의 삼각형 모델



위의 삼각형을 보면 출발어(ST)에서 도착어(TT)로 직접 가는 방식의 번역은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축어역이기 때문에 문화소에 대한 이해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번역전략에 있어서도 ‘단순 차용’ 또는 ‘재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할 경우 번역가는 상기 삼각형의 좌변을 따라 출발어 텍스트의 탈언어화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미를 도착어 텍스트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탈언어화 과정에 있어서의 번역가의 문화소에 대한 이해는 독자 차원의 중요성과 유사하거나, 번역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독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우변의 재구성 단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가는 서로 이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을 맺어주는 지식중개인이며 도착어 독자가 생소한 출발어권의 문화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번역가의 소임이다(Neubert & Shreve 54). 그리고 상기 삼각형의 재구성 단계가 바로 이러한 문화소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이 개입되는 부분이다. 도착어 독자는 텍스트를 읽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소에 대한 이해와 관련을 지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며 문화소의 부등성이 보상되지 않을 경우 이해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는 텍스트의 이해가 기존의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3. 문화소의 부등성을 보상하는 번역전략

상기 제2장에서는 문화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및 역할을 독자와 번역가의 차원에서 검증하였으며 번역의 재구성 단계에서 문화소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제3장에서는 이러한 보상 메커니즘으로서의 구체적인 번역전략을 실제 번역에 기초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상위어 사용 전략

본 전략은 문화소의 부등성이 존재할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특히 지시적 의미 차원에서의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용자 반응의 증가를 이루는 대응어가 없을 경우 동원 가능하며, 의미장(semantic field)의 위계질서가 언어 특수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어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이다(Baker 26). 이러한 ‘상위어 사용 전략’은 도착어 독자의 이해용이성⁸⁾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자.

(3) 상위어 사용을 통한 번역 예시 1

- a. 한국전 참전 지원군 1000여명이 승선한 군수송선 오르몽드호와 환송하는 수많은 **가족, 친지들**
 - b. The troopship S.S. Ormonde with over 1000 volunteers bound for Korea farewelled by a huge **crowd**
- (출처: UN 공원 Memorabilia 홀 내의 UN 참전군 설명 사진)

상기를 보면 출발어 (3a)의 ‘가족, 친지들’을 번역가가 도착어 (3b)에서는 ‘가족, ‘친지’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crowd’라는 어휘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가족 위주의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배웅하는 장면에서 주로 가족과 친지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착어 텍스트 문화권에서는 연인, 친구들, 그리고 일반 대중까지도 환송에 참여하는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따라서 (3b)에서는 가족, 친지, 연인, 친구, 일반 대중 모두를 포함하는 상위어인 ‘crowd’를 사

8) ‘이해용이성’을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의미가 전달됨’의 의미로 사용함.

용하여 보다 포괄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착어 독자에게 이해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의 장점은 도착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문화 격차가 드러남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의아함’ 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 출발어 문화소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전쟁으로 나가는 자식과 조카를 내보내는 가족, 친지들의 애달픈 사연이 번역 속에 사라지는 측면도 있다. 또 다른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4) 상위어 사용을 통한 번역 예시 2

- a. 일본인들은 조선후기 조성된 초량왜관에 **전관거류지**를 만들어 살면서 조선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었다.
 - b. They established a **Japanese settlement** and carried out commercial activities freely.
- (출처: 근대역사박물관 2층 입구 포스터)

상기 (4a)의 ‘전관거류지’는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종전의 왜관 선창이 개항되자 왜관의 돌담은 철거되고 일본정부는 종전의 왜관 자리를 조선정부에 1년에 50원씩 땅세를 내고 조차지로 빌렸으며 이 조차지를 ‘전관거류지’라 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그 지역 안에 집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선창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일을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도착어 (4b)의 경우 ‘Japanese settlement’라는 상위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위어인 이 어휘에는 전관거류지뿐만 아니라 ‘공동조계’, ‘공동거류지’, ‘단독조계’, ‘전관조계’ 모두 포함되고 있다. (4a)의 ‘전관거류지’라는 문화소가 존재하는 출발어 문화권과는 달리 도착어 문화권에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4b)에서 번역가는 상위어를 사용하여 도착어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단,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도착어 독자의 정보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출발어의 문화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때로는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도착어 (4b)의 경우에도 ‘전관거류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도착어 독자는 얻을 수 없다. 물론 (4b)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상위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부 지식 제공이 필요

할 경우 ‘부연설명 제공 전략’을 병용한다면 이 전략이 가지는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2.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

문화대체어를 사용하는 번역전략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비네와 다벨넷(52)의 ‘등가’를 확대 적용한 번역 방법이다. 출발어의 문화소를 도착어의 문화소로 대체하는 이 전략은 출발어의 문화 특수성을 지닌 요소가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도착어의 문화대체어를 사용하는 번역 방법으로, Hansen에 의해서도 유효한 번역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효중 40에서 재인용).⁹⁾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독자로 하여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용이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를 살펴보자.

(5) 문화대체어를 사용한 번역 예시 1

- a. 연면적 **4,000평**으로 단일 시설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수중 생태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
- b. Busan Aquarium is the largest one in Korea. It is a single-purpose facility occupying about **13,000 m²**. Men and women of all ages can enjoy the submarine ecology.
(출처: 해운대 해수욕장 정문 입구 안내도)

예시 (5)는 가장 일반적인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5a)의 ‘평’은 땅 넓이의 단위이며, 한 평은 여섯 자 제곱으로 3.3058m²에 해당한다. (5b)에서는 이러한 단위를 도착어 텍스트 독자들의 이해용이성을 돕기 위해 도착어의 도량형 단위인 ‘m²’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도착어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도울 수 있으며, 대다수의 도량형 단위에 있어 적용할 수 있다. 단, 계약서 번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략이다. 환산으로 인해 실질 단위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9) Hansen은 기관명에 한정하여 이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6) 문화대체어를 사용한 번역 예시 2

- a.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있으면 동래**부사**가 이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고 한다.
- b. The Dongnae **Magistrates** used to come to here to offer prayers for rains in times of drought.
(출처: 태종대 정문 입구 안내 표지판)

상기 출발어 (6a)의 ‘부사’는 신라시대 행정구역인 ‘부’의 책임자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번역가는 (6b)에서 ‘magistrate’라는 문화대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장관을 뜻하며 도착어 문화권 독자의 즉각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전략을 베누티(Venuti 116)는 현지화라 부르며 도착어 문화 및 언어에 친숙하게 하는 유용한 전략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전략은 지시적 의미가 다소 달라지며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번역가의 권한의 정도와 번역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Baker 31).

3.3.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

비네와 다벨넷(47)의 차용¹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전략은 문화 특수성을 보존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신생 어휘나 유행어를 번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어휘가 텍스트 내에서 여러 번 반복될 경우 유용하다. 이는 설명이 한번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용어만으로도 즉각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Baker 34). 이러한 번역전략을 통한 번역 예시를 아래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7)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사용한 번역 예시 1

- a. 이 **향교** 1392년(태조 원년)에 교육진흥책으로 [...]
- b. **Hyanggyo, Confucian shrine-school**, was a type of provincial educational institution introduced in the Goryeo period [...]
(출처: 동래향교 정문 앞 안내 표지판)

10) 음을 차용하는 번역 방법으로 문화적 부등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상기는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을 잘 보여준다. 출발어 (7a)의 ‘향교’를 번역가는 도착어 (7b)에서 음을 차용하여 ‘Hyanggyo’로 번역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해 ‘유교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7a)의 ‘향교’는 출발어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문화소이다. (7b)에서는 출발어의 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번역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명 방식은 문장 내 수식을 통한 설명, 괄호를 통한 설명, 주석을 통한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언어나 문화의 우월성을 부정한 슬라이마허(Schleiermacher)는 이러한 번역전략을 선호하며 타국화 번역의 범주에 두고 있다(김효중 35-36에서 재인용). ‘이해 용이성’과 ‘친숙함’에 상대적으로 더 주안점을 두는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과는 달리 문화적 색채를 보존하면서 도착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번역전략이다.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이 여의치 않거나 문화적 색채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8)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사용한 번역 예시 2

- a. 1741년(영조 17년)에 송상현 공이 좌찬성으로 추증된 후 다시 내린 교지이다.
- b. King Yeongjo honored Song Sang-hyeon again in 1741 by promoting him posthumously to the rank of Jwachanseong for the second time. It was the highest civil service rank.
(출처: 충렬사 안내 책자, 2006 2)

출발어 (8a)의 ‘좌찬성’은 조선 시대의 고위 관직명이며 출발어 문화에만 존재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8b)에서 ‘좌찬성’의 음을 차용하여 ‘Jwachanseong’이라 하고 그 앞에 ‘직책’임을 나타내기 위해 ‘rank’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장을 마지막에 삽입하여 ‘최고위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예시 (6)에서 보았던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문화적 색채를 보존할 때는 이 전략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4. 부연설명 제공 전략

이 전략을 사용할 경우 상당량의 인지적 축적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의 차이가 클수록 지시적·표현적 의미를 도착어에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지적 축적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영 번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번역전략이다. 도착어 독자 위주의 전략으로서 어족이 전혀 다를 경우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문체론적인 고려는 거의 없는 번역전략이기에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번역가는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의 범위 및 깊이를 가급적 정확히 측정하여(Neubert & Shreve 55)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국한해 부연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9) 부연설명을 통한 번역 예시 1

a. 개항기의 부산

b. Busan After 1876 Opening of Port

(출처: 근대역사박물관 2층 입구 포스터)

예시 (9)는 ‘부연설명 제공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출발어 (9a)의 ‘개항기’를 ‘1876년’ 이라는 정확한 시기적 설명을 제공하여 (9b)에서 번역함으로써 도착어 독자의 이해를 도운 번역이다. 이와 같이 이 전략은 문화적 배경을 상당량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한 번역전략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10) 부연설명을 통한 번역 예시 2

a. 척화비

b. A monument stone announcing exclusion policy

(출처: 부산박물관 본관 입구 비석 포탈)

상기 예시 (10a)의 ‘척화비’는 ‘왜국과의 화친을 배척함’을 알리는 비석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국을 배척한다’는 주변부 지식까지도 담고 있다. 이를 담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도착어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가는 (10b)에서 ‘배척 정책을 공표한다’는 점을 부연설명하고 있다.

물론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식 및 지식 구조와 연관을 맺어야만 가능하며(Straw & Sadowy 25-27) 번역가는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인지적 축적물의 상이성 및 격차를 파악한 후 부연설명을 통해 격차를 매워야 한다(Neubert & Shreve 67; 김영신 172-175)는 점을 고려할 때는 유용한 번역전략이지만, 상기 강조했듯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그바(Aghbar 82-84)는 번역가가 ‘부연설명’ 및 ‘명시화’를 시도할 경우 그라이스(Grice 41-58)의 네 가지 회화의 격률¹¹⁾ 중 ‘양의 격률’과 ‘관계의 격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며, 이 두 가지 격률을 번역에 변형·확대·적용시키고 있다. 그는 우선 ‘관계의 격률’과 관련하여, 텍스트의 전체 주제와 ‘관계’를 가지는 내용에 국한해 번역가가 부연설명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출발어의 문화소가 지나치게 ‘이국적’이고 도착어 독자의 기존의 문화적 배경 지식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문화소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범위의 정보 제공은 용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양의 격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논증하며, 도착어 독자의 이해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번역가는 부연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번역가의 욕심으로 인해 출발어 문화권에 대한 지나치게 방대한 문화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3.5. 중립적 어휘 사용 전략

이 전략은 출발어 문화권과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가 가지는 표현적 의미에 있어 격차가 클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래를 보도록 하자.

(11) 중립적 어휘를 사용한 번역 예시 1

- a.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 b. Come! See! Enjoy!

(출처: 자갈치축제 홍보 책자, 2006 1)

상기 (11)은 자갈치축체에 주의를 끌기 위한 표어와 그 번역이다. (11a)의

11) Grice의 네 가지 격률은 양의 격률(Quantity), 질의 격률(Quality), 관계의 격률(Relevance), 방법의 격률(Manner)이다.

‘사이소!’는 출발어 문화권에서는 상업적인 냄새보다는 ‘정겨움’, ‘인정 많음’, ‘왁자지껄함’ 등을 나타내지만 매우 구체적인 어휘임에는 분명하다. ‘사면서 즐겨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이 결국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라 정해주고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직설적이고 표현적일 수 있다. 이를 도착어 대응어인 ‘Buy’로 옮길 경우 ‘상업성’을 지나치게 포함하게 되며 출발어 어휘가 가지는 표현적 의미는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11b)에서 ‘Enjoy’라는 다소 막연한 ‘중립적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함으로써 ‘참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흥겨운 시장의 분위기 축제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Come! See! Buy!’로 번역이 제공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단, 지시적 의미가 중요할 경우에는 사용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12) 중립적 어휘를 사용한 번역 예시 2

- a. 동래성 전투에서 왜적과 기왓장으로 싸웠던 무명의 두 의녀와 당시의 동래부사 송상현공과 부산첨사 정발장군을 따라 순절한 금섬, 애향 **두 열녀** 등 모두 네 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 b. Also enshrined here are two other women, Geumseom and Aehyang, the **mistresses** of Dongnae Magistrate Song Sang-hyeon and Busanjin General Jeong Bal, who were killed after their men died in the battle.
(출처: 충렬사 안내 책자, 2006 5)

상기 (12)의 경우 출발어 (12a)의 ‘열녀’를 도착어 (12b)에서 ‘mistress’로 옮긴 것을 볼 수 있다. ‘열녀’는 크게 두 경우 사용된다. 우선 ‘절개가 굳은 여자’라는 일차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다. 여기에 더불어 천한 기생 신분이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여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12a)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 금섬과 애향은 원래 기생이었으나 공로를 인정받아 이후에 의녀이자 열녀로 인정받게 된다. (12b)에서 기생을 원래의 지시적 의미로 번역했다면 그들을 폄하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따라서 번역가는 (12b)에서 중립적인 단어로 바꾸어 ‘mistress’라 번역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문화소의 중요성 및 역할을 독자와 번역가의 차원에서 검증하였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식 및 지식 구조, 즉 기존 문화소에 대한 이해와 연관을 맺어야만 가능하며 번역가는 출발어 독자와 도착어 독자의 문화소에 대한 이해의 상이성 및 격차를 파악한 후, 다양한 번역 전략을 통해 그 격차를 매워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에 출발어 문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번역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산의 관광 안내 표지판 및 안내 책자의 한글과 그 번역을 비교함으로써 이들 텍스트의 번역에서 나타난 번역전략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번역전략으로 크게 다섯 가지 번역전략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

본고의 분석 대상 텍스트 번역에서 나타난 번역전략

	번역전략
1	상위어 사용 전략
2	문화대체어 사용 전략
3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 사용 전략
4	부연설명 제공 전략(단어 차원)
5	중립적 어휘 사용 전략

본고는 상기 번역전략들을 통해 문화소의 부등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발어 문화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번역전략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기능 및 효과 등을 연구하였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기 전략들은 기능 및 효과 면에서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중복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번역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번역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려 했으며,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번역에서의 문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보상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번역전략의 일부를 실제 번역 예문을 통해 다루고 있으나, 전체의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앞으로 번역학 연구에 있어 문화소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고 출발어 문화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다 더 다양한 번역전략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영신. 2005. "Application of frames to the practice of translation with reference to news translation", 『번역학연구』 6:1, 167-183.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Aghbar, A. 1995. "Grice's maxims as applied to the translation of fiction", *Studies in the Humanities* 22:1, 76-85.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Brown, R. 1986. "Exegesis for translators: An introduction", *Notes on Translation* 112, 20-32.
- Carrell, P. L. 1984.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Classroom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8:4, 332-343.
- Ellis, D. G. 1992. *From language to communic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 Le-Ny, J. F. 1989. *Sciences cognitives et compréhension du langage*. Paris: P U de France.
- Macaulay, R. 1994. *The social act: Language and its uses*. New York: Oxford UP.
- Neubert, A. & G. M. Shreve. 1992. *Translation as text*. Kent: The Kent State UP.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_____ & C. R. Tabe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ike, K. 1966.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The Hague: Mouton.
- Porter, R. E. & L. A. Samovar. 1991. Basic principl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s. L. A. Samovar & R. E. Port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 CA: Wadsworth. 5-21.
- Straw, S. B. & P. Sadowy. 1990. Dynamics of communication: Transmission, translation, and interaction in reading comprehension. Eds. D. Bogdan & S. B. Straw. *Beyond communication: Reading comprehension and criticism*. Portsmouth, NH: Boynton/Cook. 21-47.
- Venuti, L. 1995. *The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inay, J. P. & J. Darbelnet. 1977.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nglais*. Paris: Didier.

K C I

[Abstract]

Translation Strategies to Compensate for the Asymmetry of Cultural Elements: Based on the Tourist Guide Posts and Brochures of Busan

Kim, Do Hun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ilt upon previous research on intercultural studies and translation strategies, this paper aims to expand the current literature by explor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cultural element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Clear understanding of cultural elements is crucial in cross-cultural translation, as communication does not take place in a vacuum, but rather in a world of shared knowledge and experience. Hence, when the source and target text readers are separated by culture and have little or no shared cultural background, there will be a large gap that the translator will have to bridge if the target text reader is to understand the text in a manner similar to the way source text reader would understand it. And this is where the cultural elements in the source text culture must be explained or reestablished in the target text, as communication starts from a shared base. Based on a clearer understanding of cultural elements and the consequences of their asymmetry,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how the translator can communicate to the target text reader the equivalent information and connotations as the source text reader understand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illustrate concrete compensation or translation strategies that enable source and target text readers to have shared cultural understanding. The translations that serve as the bases for the explanation of translation strategies are taken from tourist guide posts and brochures that contain a number of cultural elements, thereby requiring the translator to employ active and diverse compensation mechanisms.

▶Key Words: asymmetry of cultural elements, cultural substitute, dynamic equivalence, paraphrase, superordinate, translation strategy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관심분야: 통역번역학(번역 문체론)

연락처: kdh8377@pufs.ac.kr

논문투고일: 2006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06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06년 12월 8일

K C I